최저임금 이하…그나마 떼어먹기까지

알바생 등친 '불량 고용주'

광주노동청 올 48곳 적발

"많은 액수의 아르바이트 월급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등록금을 벌만한 정도의 최저 임금만큼만 주라는 겁니다"

광주 J대학 행정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김모(24)씨는 2007년 최저임금이 3천480원으로 오른다는 뉴스를 접하고 뛸 듯이 기뻤다. 2006년엔 하루 8시간 근무에 시간당 3천100원씩 한 달에 49만6천 원을 받았으나, 올해는 3천480원씩 한 달이면 55만6천800원을 받게 돼 무려 6만 원 가량이 인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쁨은 잠시, 3월달 월급통장을 보고 깜짝 놀랐다. 6만원이 더 나온 것이 아니라 2월보다 오히려 8천800원이 깎인 것이다. 대학 측은 작년엔 점심시간 포함 8시간 근무에 해당하는 임금을 줬으나 3월부턴 '원칙'대로 점심시간 1시간을 줄인 하루 7시간 근무로 계산, 한 달에 48만7천200원만 일방적으로 지급한 것이다. 최저임금은 주되, 시간을 줄여 근로기준법 위반을 피해간 셈이다.

김씨는 "최저임금 인상이 되면 월급이 늘어나야 하는 것이 상식 아니냐"며 허탈해 했다.

근로기준법을 잘 모르는 새내기 대학생들에게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M대학 새내기인 박모(19)군은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6월20일부터 학교 근처 D당구장에서 일을 시작했다. 하지만 첫 월급을 받고 난 일주일 뒤 몸이 너무 아파 오랫동안 일을 하지 못할 것 같아 지난달 30일 그만뒀다. 박군은 10일간의 일당을 계산해서 돈을 달라고 말했지만 업주는 "갑자기 결근해서 오히려 우리가 손해 봤는데 무슨 돈이냐"라고 소리치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니 남은 일수는 안 줘도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업주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박군은 "아르바이트를 여러 번 했는데 한 번도 근로계약서 같은 걸 써본 적이 없다"며 "솔직히 노동청에 신고해서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돈을 돌려받고도 싶었지만 귀찮기도 하고, 혹여 다른 곳에서 아르바이트하지 못할까봐 그냥 참고 받았다"고 털어놨다.

광주지방노동청은 올 들어 7월까지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장 48개소를 적발해 186명의 임금 1천346만원을 추가 지급하도록 했다.

조선대 법학과 강신웅 교수는 "학생들이 근로기준법에 대해 잘 모르다 보니 적은 임금을 받더라도 권리를 빼앗긴다고 생각하는 것보단 '이거라도 받고 말지' 라며 스스로 자위(自慰)해 버린다"며 "선진국처럼 우리나라도 어릴 적부터 노동의 소중함이나 자기 권리를 배우는 노동법 교육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청어가 돌아왔다

어획량 작년보다 2배

한동안 뜸했던 청어가 돌아왔다.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는 올 상반기(1~6월) 동해안 주요 어업자원 을 분석한 결과 청어의 어획량이 1만5천891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94.8%(8천159t) 증가했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5년 평균인 3천730t에 비해 무려 426% 증가한 수치다. 청어는 동해에서 어획량을 조사하기 시작한 1999년에 1만1천t이 잡혔으나 2000년(8천265t)부터 조금씩 감소해왔다.

2000년~2005년까지 평균 2천t 미만의 어획량을 보였고, 2002년에는 고작 1천500t만이 잡혔다.

청어가 '귀한 몸'이 된 것이다.

이로 인해 청어를 꼬챙이로 꿰어 말렸다는 '관목'(貫目)에서 유래한 동해 특산물 '과메기'의 맛은 그동안 대부분 꽁치가 대신했다.

전문가들은 올해 청어 풍년은 알을 낳는 장소인 경북 영일만 부근의 산란 조건이 좋아졌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국립수산연구원 심해연구센터 황광식(44) 박사는 "10년 이상 생존하는 청어가 최근 몇 년 동안 포획되지 않고 다른 해역을 떠돌다 개체수가 늘어났고, 한꺼번에 국내로 알을 낳기 위해 회유해 어획량이 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어는 동해와 일본 북부, 발해만에 서식하며 산란기인 봄철(2~5월)에 동해 연안으로 떼를 지어 몰려와 해조류 등에 산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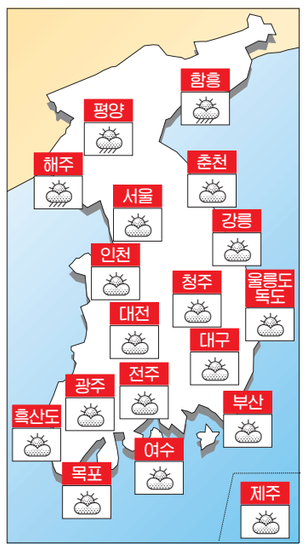
/여수=강성훈기자 kangsw@

또 소나기

구름이 많고 가끔 소나기가 오겠다.

8월 15일 (음 7월 3일) ◇전국날씨

광 주	구름 많음	24~32℃
목 포	구름 많음	25~30℃
여 수	구름 많음	24~28℃
완 도	구름 많음	24~30℃
구 례	구름 많음	25~32℃
해 남	구름 많음	24~31℃
장 흥	구름 많음	24~30℃
고 흥	구름 많음	24~30℃
순 천	구름 많음	23~31℃
영 광	구름 많음	24~31℃
진 도	구름 많음	25~32℃
전 주	구름 많음	24~32℃
남 원	구름 많음	24~32℃
흑산도	구름 많음	23~29℃



서해남부
앞바다=남동~남서풍 파고 1.0~2.0m
먼바다=남동~남서풍 파고 1.5~2.5m
남해서부
앞바다=남동~남서풍 파고 1.0~2.0m
먼바다=남동~남서풍 파고 1.0~2.5m

목 포 밀물 〈 03:45 15:49 썰물 〈 08:57 21:04
여 수 밀물 〈 10:28 22:49 썰물 〈 04:23 16:26

▲해뜸 05:51 ▲해짐 19:22 ▲달뜸 07:50 ▲달짐 20:31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16(목)	17(금)	18(토)	19(일)	20(월)	21(화)
날 씨						
최저/최고	24/32	25/32	26/31	25/32	25/32	25/32

'가짜 학위' 신정아씨 기소중지 될 듯

서울 서부지검은 14일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의 학위위조 ·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 이르면 다음주에 신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참고인 조사를 하고 있다"며 "내주 중에 참고인 조사를 마친 뒤 (신씨가 자진출두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기소중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으로 출국한 신씨와 연락이 닿지 않아 현지 연락망을 통해 소재지를 알아보고 있다며 현재 신씨는 피의자 신분이지만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전했다.

교포들 사이에서는 신씨가 뉴욕의 한 중식당에서 목격됐다는 등 제보가 나오고 있지만 신씨의 현지 거주지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

동국대는 교원특채 과정에서 신씨가 예일대의 학위증명확인서와 캔자스대의 졸업증명서를 위조해 제출함으로써 공정한 교원임용 업무를 방해했다며 지난달 23일 고소장을 제출했다.

/연합뉴스

외고 1년 학비 최고 686만원

전남외고 270만원

특목고인 외국어고 학생 1인당 연간 학비 부담액이 올해 최고 686만원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외고의 경우 270만원이다.

14일 교육부가 작성한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과 부산 등 외국어고 1년 학비 부담액은 지난해 대부분 480만~490만원 수준이었으나 올 들어 대부분 500만원을 넘어섰다.

부산 부일외고는 수업료·학교운영 지원비·기숙사비·방과후학교 교육비 등을 합쳐 1인당 연 부담액이 686만원에 이르러 최고액을 기록했다. 이는 사립대의 평균 등록금과 맞먹는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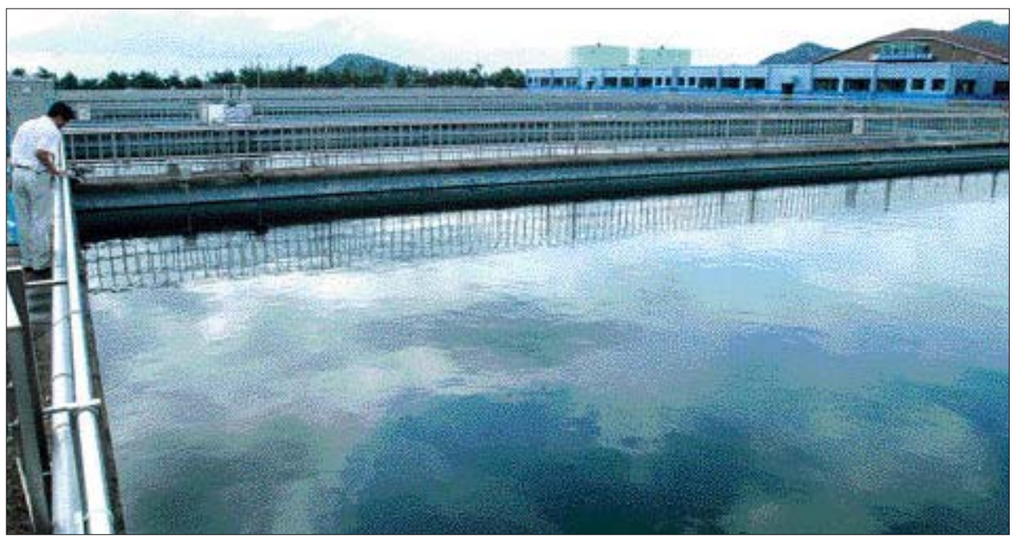
한영외고는 연 학비가 571만9천600원으로 서울에서 가장 높았고 부산외고 561만1천원, 서울외고 552만1천600원, 대일외고 531만5천600원 등으로 나타났다.

인천외고는 520만원, 경북외고 519만원, 대원외고 508만원, 명덕외고 498만원, 이화외고 497만원, 청주외고 473만원, 부산국제외고 444만원 등이다. 일반고가 대부분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등을 합쳐 200만~210만원 정도인데 비하면 외고 학비는 최고 3배 이상 높은 것이다.

대구외고는 387만원, 충북 중산외고 375만원, 전북외고 371만원, 김해외고 367만원, 제주외고 345만원, 대전외고 290만원 등으로 파악됐다.

반면 서울과학고와 한성과학고는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등을 합쳐 230만원 정도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황태종기자 hwangtae@



광주시 남구·서구 일원의 수돗물을 공급하는 덕남정수장. 광주시는 설문조사 결과 시민들의 3.7% 만이 수돗물을 그대로 마신다고 응답함에 따라 신뢰도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 수돗물 그냥 마시는 시민 3.7% 뿐

'신뢰한다' 18.8% 불과

평소 수돗물을 마시는 광주시민은 10명 중 4명에도 미치지 못하며, 수돗물을 마시더라도 그냥 마시는 경우는 3.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시 상수도본부는 최근 시민 600명을 대상으로 수돗물 신뢰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36.5%만이 수돗물을 마신다고 답했다고 14일 밝혔다.

반면 46.8%가 정수기 물을 음용하고 있었고 ▲시판 생수 9.0% ▲약수 3.8%▲무응답 0.4% 순이었다.

수돗물 음용자 가운데 94.5%는 '기호식품을 넣어 끓여 마신다'고 답한 반면 '그냥 마신다'는 시민은 3.7%에 불과했다. 시민들은 수돗물을 마시지 않는 이유로 ▲막연한 불안 45.9% ▲소독 냄새 22.4% ▲물맛이 나빠서 13.3% ▲불신 보도 11.2% ▲녹물이 나와서 7.1% 등을 댔다.

'수돗물을 신뢰하느냐'는 질문에는 18.8%만이 '신뢰한다'고 답해, 수돗물 음용 비율(36.5%)에도 미치지 못했다. '보통이다'는 67.2%,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4.2%였다.

수돗물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는 51.8%가 '노후한 급·배수관 교체'를 꼽았고 ▲원수수질 개선 19.0% ▲정수 처리 시설의 현대화 18.1% ▲수돗물 홍보 강화 5.7%순이었다.

수돗물에 대한 불만사항으로는 소독냄새가 나서(32.9%)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녹물이 나와서 17.2% ▲부과된 수도요금이 정확하지 않아서 9.7% 순이었다. 수돗물 병물 생산에 대해서는 32.5%만이 긍정적으로 답했다.

/김주정기자 jjnews@

동구청, 무료 석식 제공

광주시 동구청은 14일 "'월드비전'과 함께 관내 저소득 65세 이상 주민과 결식아동 200여 명에게 무료 저녁 식사를 제공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저소득층에게 무료 석식이 지급되는 건 처음이다.

동구는 '월드비전 광주·전남지부'(지부장 이기동)와 다음달 5일부터 저소득층에게 저녁 도시락을 배달한다. 무료 식사는 한 끼당 2천500원이며, 연간 1억5천여만원의 예산은 '월드비전'이 지원하게 된다.

동구는 사업 성과에 따라 무료 저녁 도시락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하반기 순경 667명 공채

경찰청은 2007년도 2차 경찰공무원(순경) 공채로 일반 순경 607명과 정보통신 순경 60명을 뽑는다고 14일 밝혔다.

원서교부와 접수는 14일부터 28일까지 각 지방경찰청 민원봉사실에서 이뤄지며, 필기시험은 다음달 9일, 체력·적성검사는 다음달 18~21일, 면접시험은 11월 13~16일 치러진다. 최종합격자 발표일은 11월 21일이다.

채용 정원은 성별·지방청별·직렬별로 책정돼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각 경찰관서 홈페이지에 올라 있다.

/연합뉴스